

「なんか」「なんて」의 의미와 품사와의 관계

박미영* · 손동주**

This paper analyzes regarding the syntactic difference between 「nanka」 and 「nante」 whether or not the image of a noun which connects the front and back of 「nanka」 and 「nante」, adjective, and other conjugated forms is minus, and classifies their meanings based on that. Also the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of case particle between 「nanka」 and 「nante」. As a result of analyzing any difference between 「nanka」 and 「nante」 in accordance with the conjunction order of particle, it was discovered that 「nanka」 has the character of 「hukujoshi」 whereas 「nante」 has the character of 「kakarijoshi」.

「Nanka」 originally has the characteristics of hukujoshi; however as it came to have the meaning of negative emphasis,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kakarijoshi, whereas 「nante」 has the characters of kakarijoshi which is in a statement relationship with a predicate part. However as it came to have an euphemistic meaning, it is supposed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hukujoshi.

Key words : Nanka, Nante, Hukujoshi, Kakarijoshi, Kakuji
(なんか, なんて, 부조사, 계조사, 격조사)

1.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なんか」와 「なんて」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なんか : 「なにか」の變化した語、「など」とほぼ同じに用いる
口頭語。
体言または体言と同資格の語句を受けて用いる。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박사과정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교수

なんて : (副助詞「など」に格助詞「と」の付いた「などと」の変化したもの)問題になっている事物・事態が基準を逸脱しているという評価を表わし、また、引用を修辭的にぼやかすのに用いる¹⁾。

沼田(1986:214)는 「など(なぞ・なんか)」와 같은 의미로 보고 「など」「なんか」의 예문을 들어 의미를 분류하고 있고, 寺村(1991:181)는 取り立て조사 「など」는 격식이 없는 회화체에서는 「なんか」「なんぞ」로, 「なんか」와 비슷한 형태로 「なんて」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森田(2007:196)는 「など」는 회화체에서 「なぞ」「なんぞ」로 사용된다고 언급할 뿐, 「なんか」「なんて」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仁田(2009:119)는 「など」「なんか」「なんて」를 평가를 나타내는 도리타테 조사로 분류하고, 문체에 따라 문장체에서는 「など」, 회화체에서는 「なんか」「なんて」로 쓰인다고 한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など」에 관한 연구를 중점으로 하고, 「かたい文体」 표현은 「など」, 「話し言葉・くだけた文体」 표현은 「なんか」이고, 「なんか」와 비슷한 의미로 「なんて」가 있다고만 할뿐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など」「なんか」「なんて」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1)과 같이 서로 호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2)(3)처럼 서로 호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 (1) 心理分析 {など / なんか / なんて} 聞きたくもない。[サ]
- (2) 揚げパン大好きですよ。今でも、宅配の生協 {など / なんか / *なんて} で扱っていますよ。[国]
- (3) 私のことでそんなに自分を責めてた {なんて / *など / *なんか} 知らなかった。[サ]

따라서, 본고에서는 寺村(1991)·仁田(2009)에서 비슷한 의미

1) 日本大事典刊行会(1980)『日本国語大辞典〔縮刷版〕』第八巻、小学館、p.371、p.386.

로 보고 있는 「なんか」「なんて」의 접속에 따른 통어적 차이와 접속하는 품사에 따른 이미지 및 의미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와 같이 격조사「で」의 접속에 의해 「なんて」가 서로 호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앞뒤에 접속되는 격조사와의 관계에 의한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なんか」「なんて」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なんか」「なんて」의 의미 분석을 통해 품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2. 「なんか」「なんて」의 접속

「なんか」와 「なんて」의 통어적 차이를 「なんか」「なんて」에 前接・後接하는 명사, い형용사, な형용사, 그 외의 활용형의 이미지가 마이너스인가, 아닌가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 분류를 한다.

2.1 「なんか」「なんて」앞에 접속되는 품사

「なんか」는 대부분 명사에 접속되지만, 조사, 동사て형, たり~する, 형용사 연용형 등에 접속되는 경우도 있다. 단, 동사・な형용사・이형용사의 중지형 등에는 접속되지 않는다.

- (4) いまさらそんな教訓なんか真っ平だ。[国] (명사)
- (5) 私、田舎になんか帰りたくない。ここにおりたい。[国] (조사
사에)
- (6) 昨日は久しぶりに長電話したよお。2時間くらいなんか話し込
んじやったな。[国] (조사 くらい)
- (7) そこだけを切り離してなんかやろうよ。[国] (て형)
- (8) 目薬をさしたりなんかして目に入った汚れを流すしかないんで
すかね。[国] (たり ~する)
- (9) そうさ、おじさんと会えなくなったって、さびしくなんかな

い。[国] (이형용사 연용형)

(10) きらいなんかじゃない。[国] (나형용사 연용형)

「なんて」는 「なんか」와 마찬가지로 명사, 조사, 동사て형, たり~する, 형용사 연용형 등에 접속된다.

(11) 人間の記憶なんて, あてにならないものだ。[国] (명사)

(12) ビオレッタの両親は息子を大学へなんてやるのではなかったと、嘆いた。[国] (조사 へ)

(13) たまに寝坊とかしたらお茶漬けだけなんてこともあります。[国] (조사 だけ)

(14) さびしくなんてないさ。会いたい人とはいつもいっしょだし、いつでも会えるからね。[国] (이형용사 연용형)

(15) 道路で遊んでうるさくて迷惑なんて言え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のですが。[国] (나형용사 연용형)

(16) 涙こぼしたりなんてしない。[歌] (たり~しない)

(17) 泣いてなんていませんでした。[国] (て형)

(18) こそこそなんてしない、堂々のふるまいである。[国] (부사)

(11)~(18)은 「なんか」와 마찬가지로 「なんて」의 경우에도 접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한 「たり~しない」의 경우라도 (8)처럼 「なんて」의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와, (16)처럼 가능한 경우도 있다.

(8) *目薬をさしたりなんてして目に入った汚れを流すしかないんですかね。[国] (たり ~する)

그러나, 「なんて」는 「なんか」에 접속될 수 없는, 동사·나형용사·이형용사의 종지형, 동사 た형, 조동사 だ, 도리타테 조사에 접속하기도 한다.

(19) あなたばかりが悩む...[なんて / *なんか], おかしいです。

[国] (동사)

- (20) 借金しか残らなかった..{なんて / *なんか}話もありますよ。
[国] (타형)
- (21) どうして早く死ぬことが美しい..{なんて / *なんか}思ったん
だろう。[国] (이형용사)
- (22) 小型は良くて大型はダメだ..{なんて / *なんか}悲しいです
ね。[国] (나형용사)
- (23) 私は父がこんな人だ..{なんて / *なんか}知ろうともせず、
知りませんでした。[国] (다형)

(19)~(23)의 경우, 동사·나형용사·이형용사의 종지형, 동사
타형, 조동사 だ는 「なんて」 앞에 접속할 수 있으나, 「なんか」 앞
에는 접속할 수 없다. 「なんか」는 대부분 명사에 접속되는 것에
반해, 「なんて」는 명사 이외에도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3) 통해 분석한 「なんか」「なんて」에 前接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なんか」「なんて」 앞에 오는 품사

품 사	なんか	なんて
명 사	O	O
조 사	O	O
동 사 て 형	O	O
たり ~ しない	O	O
형용사 연용형	O	O
동 사 기 본 형	X	O
형용사 기본형	X	O
타형 / 다형	X	O
たり ~ する	O	X

2.2 「なんか」「なんて」 뒤에 접속되는 품사

「なんか」 다음에 오는 품사는, 명사, 조사, 동사, な형용사, い형용사, 부사 등이다.

- (24) スキーなんか一生やる気はなかったんだが、そういうわけにもいかなかったんだ。〔国〕(명사)
- (25) 彼らは退院しても、まだ生活習慣なんかが身についていない。〔国〕(조사 가)
- (26) お菓子なんかも、買えなかったって。〔国〕(조사 も)
- (27) こんな勉強なんか役に立つものか。〔国〕(동사)
- (28) いやだ。おまえなんか太嫌いだ。〔国〕(나형용사)
- (29) 私も目玉焼きなんか易しいと思っていた。〔国〕(이형용사)
- (30) おかあさん、きょうの英語のテスト一五点だったよ。英語なんかさっぱりわからない。〔国〕(부사)

「なんて」 다음에 오는 품사는, 명사, 동사, な형용사, い형용사, 부사 등에 접속된다.

- (31) 兄弟なんて母親の前では横並びなんですよ。〔国〕(명사)
- (32) 決して馬鹿になんてしていません。〔国〕(동사)
- (33) 七十、八十になって、内臓の調子が悪いなんて当り前だよ。〔国〕(나형용사)
- (34) 検査なんて怖くないよ。〔国〕(이형용사)
- (35) わたしもどんなに仲の良い友達でも、恋人でも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自分の見方になってくれる人なんてきつといないと思っています。〔国〕(부사)

이처럼 「なんか」「なんて」 다음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올 수 있지만, 조사는 「なんか」 다음에만 올 수 있다.

2.2.1 「なんか」뒤에만 접속하는 경우

(36)은 조동사 「だ」, (37)은 「だ」의 정중형인 「です」, (38)은 「だ」의 부정형인 「じゃない」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9), (40)과 같은 조사가 後接하는 경우에는 「なんか」 뒤에는 접속할 수 있으나, 「なんて」 뒤에는 접속할 수 없다.

- (36) ヘビ類のだいたい三分の一、一〇〇〇種類ほどが毒ヘビだつてさ。
 コブラやウミヘビ、クサリヘビ、マムシ{なんか / *なんて}だね。[国] (なんか+だ)
 (37) ジャンルは日本のロックで、パンプ・オブ・チキン {なんか / *なんて}です。[国] (なんか+です)
 (38) 冗談{なんか/*なんて}じゃない。[国] (なんか+じゃない)
 (39) 不良非行少年 {なんか / *なんて}がこれにあたります。
 [国] (なんか+が)
 (40) これをやっていけばいまのような問題 {なんか / *なんて}もないわけですね。[国] (なんか+も)

(41)~(42)은 「なんか」「なんて」와 술어와의 관계에 의한 접속 여부이다. (41)과 같이 동작성 술어에는 「なんか」만이 오지만, (42)과 같은 상태성 술어에는 「なんか」「なんて」둘 다 가능하다.

- (41) いつからノック{なんか / *なんて}するようになったんだ?
 [国] (동작)
 (42) 本当です。でも別に謎 {なんか / なんて}ありませんよ。
 [国] (상태)

2.2.2 「なんて」뒤에만 접속하는 경우

「なんて」는 「なんか」와 다르게, 종조사의 용법으로 사용되며, 이 경우에는 「의외·놀람」을 나타낸다.

(43) でも、こんな寒い時期に蛾がいるなんて…。〔国〕

(44) 阿須田さん珍しいわね。遅刻なんて。〔ミ〕

(43)이 「こんな寒い時期に蛾がいる」로 끝나면 단순히 「이런 추운 시기에 나방이 있다」만을 나타낸다. 그러나 종조사 「なんて」가 접속되면 「信じられない」「あり得ない」와 같은 「의외·놀람」의 의미를 내포하는 문이 된다.

또한, (44)는 도치법을 이용하여 「阿須田さんが遅刻なんて珍しいわね」라는 문을 「阿須田さん珍しいわね。遅刻なんて」로 「의외·놀람」을 나타내고 있다. 「なんて」가 종조사로 쓰이는 경우는 (44)와 같은 도치 용법이 많다.

그리고 (45)~(48)와 같이 형식명사 「こと」「もの」「の」와 동격의 관계인 경우에는 「なんて」뒤에만 접속이 가능하다.

(45) 他のホテルみたいに乾燥しすぎて鼻が乾いたりしないように、自然な空気を送っているの。だから、黴臭いなんてことは、考えられないのよ。〔国〕

(46) 万年筆型の整図ペンなんてものを見ると、本当に便利になったもんです。〔国〕

(47) 霊なんてのも同じだ。〔国〕

(48) とくにあの松本なんてやつとは、ほどほどに付き合うように。〔世〕

日本文法大辞典에서 「同格の関係で次の語句を修飾し、語句の内容を示す。無視・軽視する気持ちの込められることが多い。」로 「なんて」와 형식명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なんか」는 「同格の関係で次の語句を修飾し、語句の内容を示す」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48) 통해 분석한 「なんか」「なんて」에 後接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なんか」「なんて」의 後接하는 품사

なんか	なんて	품 사
O	O	명 사
O	O	조 사
O	O	등 사
O	O	형 용 사
O	O	부 사
O	X	だ／です／じゃない
O	X	조 사
O	X	동작성 술어
O	O	상태성 술어
X	O	종 조 사
X	O	형 식 명 사
X	O	동격의 관계

2.3 「なんか」「なんて」가 접속하는 품사에 따른 이미지 및 의미분류

(4)~(48)의 예를 「なんか」「なんて」가 접속하는 항목의 이미지를 [표 3]과 같이 마이너스인지 아닌지를 나누고, 의미 분류하였다.

【표 3】「なんか」「なんて」의 前接, 後接에 따른 이미지 및 의미분류
(- : 마이너스 이미지인 경우, △: 마이너스 이미지가 아닌 경우)

なんか/なんて	의미분류	이미지	なんか・かんで 호환여부(O・X)	예문번호
なんか	否定的強調	-	O	4
	否定的強調	-	O	5
	否定的強調	-	O	9
	否定的強調	-	O	10

	否定的強調	-	O	24
	否定的強調	△	X	25
	否定的強調	-	X	26
	否定的強調	-	O	27
	否定的強調	-	O	28
	否定的強調	△	O	30
	否定的強調	△	X	38
	否定的強調	-	X	40
	やわらげ	△	X	6
	やわらげ	△	X	7
	やわらげ	△	X	8
	やわらげ	△	O	29
	やわらげ	△	X	37
	やわらげ	△	X	39
	やわらげ	△	X	41
	並列	△	X	36
なんて	否定的強調	△	O	11
	否定的強調	-	O	12
	否定的強調	-	O	14
	否定的強調	-	O	15
	否定的強調	-	O	16
	否定的強調	-	O	17
	否定的強調	-	O	18
	否定的強調	-	O	32
	否定的強調	-	X	33
	否定的強調	△	O	34
	否定的強調	△	O	35
	否定的強調	-	O	42

	否定的強調	-	X	45
	否定的強調	-	X	48
	やわらげ	△	X	13
	やわらげ	△	X	20
	やわらげ	△	X	21
	やわらげ	△	X	22
	やわらげ	△	X	23
	やわらげ	△	O	31
	やわらげ	△	X	46
	やわらげ	△	X	47
	意外・驚き	△	X	19
	意外・驚き	-	X	43
	意外・驚き	-	X	44

「なんか」는 「否定的強調」「やわらげ」「並列」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否定的強調」인 경우는 대부분 「-」 이미지이지만, 「△」 이미지도 있다. 「やわらげ」「並列」인 경우는 「△」 이미지인 것을 알 수 있다.

「なんて」는 「否定的強調」「やわらげ」「意外・驚き」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なんか」와 마찬가지로 「否定的強調」인 경우는 대부분 「-」 이미지이지만, 「△」 이미지도 있다. 「やわらげ」 경우는 반드시 「△」 이미지이고, 「意外・驚き」인 경우는 「-」 또는 「△」 이미지인 것을 알 수 있다.

「なんか」「なんて」의 상호 호환가능 여부는, 「なんか」의 「並列」, 「なんて」의 「意外・驚き」는 서로 호환이 불가능하나, 「否定的強調」「やわらげ」인 경우는 호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표 1〕〔표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なんか」「なんて」는 前接・後接의 제한에 있어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 3〕과 같이 이미지 및 의미 분류에서는 뚜렷하게 차이점이 보이지 않

는다.

「なんか」「なんて」의 상이한 점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조사와 계조사로 형성된 「도리타테조사」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なんか」「なんて」와 격조사의 관계

「부조사」「계조사」는 山田孝雄(1922)가 명명한 것으로, 「부조사」는 용언의 의미 내용에 관여하는 조사로 「ばかり、だけ、くらい、まで、など、や、か」가 있다. 「계조사」는 술어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로 「さえ、しか、こそ、は、も、でも、ほか」 등이 있다.

그렇다면 「など」의 회회체로 쓰이는 「なんか」「なんて」도 부조사인가? 築島(1964:151)는 「부조사」「계조사」가 한 문장에서 쓰일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副助詞』が、『係助詞』と共に用いられる場合は、必ず『係助詞』の上に位置し、『副助詞』+『係助詞』の順となる。又、『副助詞』が『格助詞』と共に用いられる場合は、『副助詞』が『格助詞』の下に位する場合と、『格助詞』の上に位する場合がある。」

築島(1964:151)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 ①~③과 같다.

- ① 격조사와 계조사가 공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격조사+계조사]
- ② 격조사와 부조사가 공기하는 경우에는
[부조사+격조사] [격조사+부조사]
- ③ 부조사와 계조사가 공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조사+계조사]

3.1 「なんか」「なんて」와 격조사의 접속 순서

築島(1964:151)의 「부조사」「계조사」 접속 순서에 「なんか」「な

んて」를 대입시켜보면 (49)~(53)과 같다.

(49) 学校が嫌なら、学校になんて来なければいいのです。

[国] -----① [격조사+なんて]

(50) 金なんかから超越してる。 [国] -----② [なんか+격조사]

(51) 仕事になんか行きたくない。 [国] -----② [격조사+なんか]

(52) 私なんかも非常にけちなんだよ。

[国] -----③ [なんか+계조사]

(53) たまに寝坊とかしたらお茶漬けだけなんてこともあります。

[国] -----③ [부조사+なんて]

(49)는 ①과 같이 「격조사(に)+なんて」의 접속으로, 「なんて+격조사(に)」는 될 수 없다. (50)는 ②와 같이 「なんか+격조사(から)」가 접속되었으며, 또한 (51)과 같이 「격조사(に)+なんか」가 접속될 수도 있다. (52)(53)는 ③과 같이 「なんか+계조사(も)」, 「부조사(だけ)+なんて」가 접속되었다.

(49)~(53)를 통해 조사의 접속 순서에 따른 「なんか」「なんて」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なんか」는 “부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なんて」는 “계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 중에서 「なんか」「なんて」가 통어적 차이로 서로 호환이 불가능한, (39)(40)의 「なんて」 뒤에 격조사, 도리타테조사가 접속될 수 없는 이유는 「なんて」가 계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36)(37)(38)에서 조동사 「だ」 또는 정중형인 「です」, 부정형인 「じゃない」와 접속이 불가능한 것도 「なんて」가 계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4) どれも父親が誇りと愛情をもって集めた写真ばかりだ。

[国]

(55) ただ、わたしは別れるだけです。 [国]

(56) 親友なんて一生に一人できればいいくらいじゃないですか。 [国]

(54)~(56)의 「ばかり、だけ、くらい」는 부조사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だ」「です」「じゃない」가 접속 가능하지만, 「さえ」「しか」「こそ」「は」「も」「でも」「ほか」는 계조사이므로 「だ」「です」「じゃない」가 접속할 수 없다. 따라서 조동사 「だ」의 접속 여부에 따라 「なんか」는 부조사의 성격을, 「なんて」는 계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なんか」「なんて」의 격조사의 위치에 따른 의미분류

「など」의 「話し言葉・くだけた文体」 표현인 「なんか」「なんて」가 격조사와 前接하느냐, 後接하느냐에 따라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なんか」「なんて」와 격조사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なんか」「なんて」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박미영·손동주(2010)의 의미 분류를 참고한다. 단, 「なんか」「なんて」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완곡-やわらげ」「평가-否定的強調」만을 연구범위로 한다.

- (57)a. 仕事になんか行きたくない。(国) ----- 부정적 강조
 b. *仕事になんか行きたい。----- X
 c. 仕事なんかに行きたくない。----- 부정적 강조
 d. 仕事なんかに行きたい。----- 완곡

(57a)의 「격조사(に)+なんか+부정」을 (57b)(57c)(57d)와 같이 「なんか」와 격조사 「に」의 위치를 바꾸고, 술어 부분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바꾸어 문이 성립하는지 알아보았다. 「격조사+なんか」인 경우, 술어가 부정문인 (57a)「なんか」는 가능하지만, 긍정인 (57b)는 비문이 된다. 그러나 (57c) (57d)의 「なんか+격조사」는 자연스러운 문인 것을 알 수 있다.

- ① 「완곡」의 의미일 때: 「なんか+격조사」
 ② 「부정적 강조」의 의미일 때: 「なんか+격조사」, 「격조사+なんか」

「なんて」도 (58a) 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문이 성립하는지 알아본다.

- (58) a. 仕事になんて行きたくない。----- 부정적 강조
 b. *仕事になんて行きたい。----- X
 c. *仕事なんてに行きたくない。----- X
 d. *仕事なんてに行きたい。----- X

「なんて」도 「なんか」와 마찬가지로, (58a)(58b)의 「격조사+なんて」인 경우, 술어가 부정문인 (58a)「なんて」는 가능하지만, 긍정인 (58b)는 비문이 된다. 그리고 (58c)(58d)의 「なんて+격조사」도 모두 비문이 된다.

- ① 「완곡」의 의미일 때: 비문
 ② 「부정적 강조」의 의미일 때: 「격조사+なんて」

그렇다면, (58a)의 「仕事になんか行きたくない」와 (58c)의 「仕事なんかに行きたくな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宮地(1971)는 ①은 「副機能」로, ②는 「準体機能」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²⁾

- ① 私にだけ知らせて来た。・・・격조사+부조사
 ② 私だけに知らせて来た。・・・부조사+격조사

①과 같이 주어—술어의 격관계 사이에는 원칙적으로는 「だけ」를 넣지 않고, ②와 같이 「私」와 체언이 하나로 된 「私だけ」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위의 ①②에서 宮地(1971)가 말하는

2) 築島裕(1964) 『国語学』 東京大学出版会、pp.152、재인용.

「だけ」는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이고, 술어부가 긍정문이다. 「だけ」가 한정하는 것은 명사부인 「私」이고, 술어부의 동사까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57a) (57c)처럼 부정 술어와 접속된 경우에는 명사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술어부를 강조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격조사+なんか」 즉 (57a)가 (57c)보다 부정의 의미가 더 강조된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격조사 접속 위치에 따른 초점의 변화

한정의 의미
私 <u>だけ</u> に知らせて来た。 > 私に <u>だけ</u> 知らせて来た。
부정의 의미
仕事 <u>なんか</u> に行きたくない。 < 仕事に <u>なんか</u> 行きたくない。

이와 같이 「なんか」「なんて」를 격조사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なんか」는 부조사의 성격을, 「なんて」는 계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山田(1922)는 부조사는 용언의 의미 내용에 관여하는 조사이고, 계조사는 술어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 (59)~(62)는 「완곡」「부정적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なんか」「なんて」의 문으로, 「なんか」가 부조사 성격을 「なんて」가 계조사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59) お母さんは何であの日川なんかに行ったのかな。

[ミ] (완곡)

(60) 他人の幸せなんてどうでもいい。[国] (완곡)

(61) お父さんなんか信じない。[ミ] (부정적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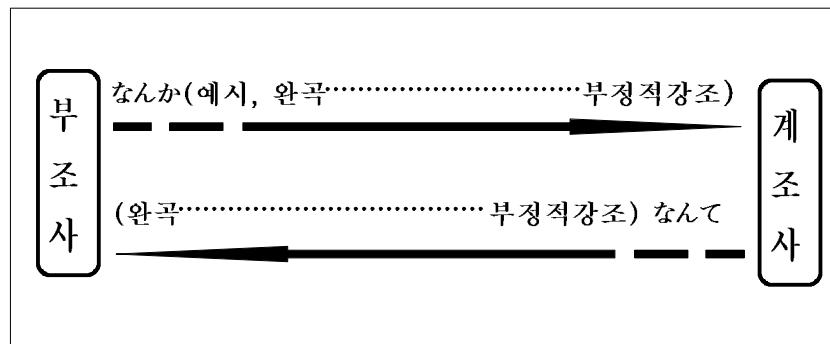
(62) 死んだお母さんと歌った歌なんて忘れなさい。

[ミ] (부정적 강조)

(59)(60)은 「완곡」의 「なんか」「なんて」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의미 내용을 관여하고 있으며, (61)(62)는 「부정적 강조」의 「なんか」「なんて」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술어부분으로, 술어와 진술관계를 가진다. 「なんか」「なんて」가 부조사의 특징과 계조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なんか」가 「예시」「완곡」의 의미가 강한 반면 「なんて」는 「부정적 강조」의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완곡」의 의미가 부조사의 특징을, 「부정적 강조」의 의미가 계조사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5】와 같이 「なんか」는 본래 부조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 강조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계조사로, 반대로 「なんて」는 술어부와 진술관계에 있는 계조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완곡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부조사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여겨진다.

【표 5】 부조사 · 계조사의 특징을 가지는 「なんか」「なんて」



4. 결 론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비슷한 의미로 보고 있는 「なんか」「なんて」의 前接·後接에 따른 통어적 차이와 접속하는 품사에 따른 이미지 및 의미를 분류하였다. 또한, 격조사의 접속에 의해 서로 호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앞뒤에 접속되는 격조사와

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첫째, 「なんか」「なんて」앞에 접속되는 「なんか」는 동사·나형용사·이형용사의 종지형 등에는 접속되지 않는다. 「なんて」는 「なんか」에 접속될 수 없는, 동사·나형용사·이형용사의 종지형, 동사타형, 조동사だ, 도리타테 조사에 접속된다.

둘째, 「なんか」뒤에는 「だ」「です」「じゃない」를 접속할 수 있으나, 「なんて」뒤에는 접속할 수 없다. 또한, 술어와의 관계에서는 「なんか」는 동작성 술어, 상태성 술어에 접속할 수 있으나, 「なんて」는 상태성 술어에만 접속할 수 있다.

「なんて」는 종조사의 용법, 형식명사 「こと」「もの」「の」와 동격의 관계는 「なんて」뒤에 접속할 수 있으나, 「なんか」뒤에는 접속할 수 없다.

셋째, 「なんか」「なんて」가 접속하는 품사에 따른 이미지 및 의미 분류를 분석한 결과, 「なんか」는 「否定的強調」인 경우는 대부분 「-」이미지이지만, 「△」이미지도 있다. 「やわらげ」「並列」인 경우는 「△」이미지인 것을 알 수 있다.

「なんて」는 「なんか」와 마찬가지로 「否定的強調」인 경우는 대부분 「-」이미지이지만, 「△」이미지도 있다. 「やわらげ」경우는 반드시 「△」이미지이고, 「意外・驚き」인 경우는 「-」또는 「△」이미지인 것을 알 수 있다.

「なんか」「なんて」의 상호 호환가능 여부는, 「なんか」의 「並列」, 「なんて」의 「意外・驚き」는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나, 「否定的強調」「やわらげ」인 경우는 호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넷째, 「なんか」「なんて」와 격조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なんか」는 「부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なんて」는 「계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조사 접속 위치에 따른 초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완곡」으로 「なんか」「なんて」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의미 내용을 관여하고 있으며, 「부정적 강조」로 「なんか」「なんて」가 강조하는 부분은 술어 부분으로 술어와 진술관계를 가진다.

여섯째, 「なんか」는 본래 부조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강조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계조사로, 「なんて」는 계조사의 특

징을 가지고 있지만, 완곡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부조사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참고문헌

- 박미영 · 손동주(2010) 「「など」「なんか」「なんて」の異同について」『日語日文学』48, 대한일어일문학회, pp.93-106.
- 築島裕(1964) 『国語学』東京大学出版会、pp.151-152.
- 寺村秀夫(1991)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Ⅲ』くろしお出版、p.181.
- 仁田義雄(2009) 『日本語文法5』くろしお出版、p.119.
- 日本大事典刊行会(1980) 『日本国語大辞典〔縮刷版〕第八卷』小学館、p.371、p.386.
- 沼田善子(1986) 『いわゆる日本語助詞の研究』凡人社、p.214.
- 森田良行(2007) 『助詞・助動詞の辞典』東京堂出版、p.196.
- 山口明穂 · 秋本守英(2001) 『日本文法大辞典』明治書院、p.583.
- 山田孝雄(1922) 『日本口語法講義』宝文館出版、p.126、pp.159-160.

용례출전

- [サ] サイコドクター(드라마)
- [ミ] 家政婦三田(드라마)
- [歌] 簡単に言えたなら(노래 가사)
- [世] 世界の中心で、愛をさけぶ(소설)
- [国] 国立国語研究所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

성 명(한 글) : 박 미 영
(한 자) : 朴 美 瑩
(영 문) : Park, Mi-Yong
논문영어제목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Nanka」
and 「Nante」 and Part of Speech
소 속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박사과정
주 소(자 택) : 울산시 중구 다운동 561-8번지
Tel : 052-249-2707
휴대폰 : 010-7227-2707
E-mail : pmy7301@hanmail.net

44 日本語文學 第 64 輯

성 명(한 글) : 손 동 주

(한 자) : 孫 東 周

(영 문) : Son, Dong-Ju

논문영어제목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Nanka」
and 「Nante」 and Part of Speech

소 속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교수

주 소(학 교) :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일어일문학부(인문사회관) 1411호

Tel : 051-629-5394

휴대폰 : 010-5560-6711

E-mail : djson@pknu.ac.kr

투 고 일 : 2014년 1월 9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